

# 2026 공동체은행 빙고 정기총회

2월7일(토)

2-5시

희년평화빌딩 1층  
(퇴계로36가길97)



1부 사전행사  
인사, 공유, 빙고활동상

2부 본회의  
정기총회(2026년)

# 총회 식순

- 1부 : 사전행사 (14:00~14:50)
- 2부 : 본회의
  - : 2024년 활동평가 (15:00~15:40)
  - : 2025년 활동계획 (15:40~16:50)
- 3부 : 뒷풀이 (17:00~22:00)

# 1부 : 사전행사

- 조합원 인사 / 공동체 소개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빙고활동상(BINGO AWARD) 시상식

# 조합원 인사 / 공동체 소개

# 총회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36명

# 당신에게 2025년은?

- 건강이 좋지 않아 주로 재택했습니다.
- 2024년의 경험들로 잡은 방향에 첫걸음을 뗁 해
- 넘 열심히 달려서 현재 넋따운 번아웃 동안거 중입니다.
- 오랜 기간동안 건강을 돌보며 지냈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빙고의 묵묵하고 조용한 연대 덕분에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안심하고 기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지하며 지냈네요.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상환을 시작해 봅니다. 당장은 빙고 활동에 물질을 보탤 수는 없지만, 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배웠던 하와이의 문화 - 빌라와 호흡명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편히 자리해 보아 주세요. 일정 및 방식은 빙고 운영자분들과 추가 상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는 나눔 활동은 웃 칸 질문의 답변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 지인이 약속했던 일자리가 취소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구직활동 중이며, 작은 자리에도 많은 구직자들이 몰리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지만, 빙고의 도움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 다행히 취직이 되어 짊어줄진 않겠구나 하며 안도한 해였습니다. 순천에 여전히 적응하는 중입니다.
- 빙고출자를 많이 못한거 같아요. 올핸 좀더 자주 빙고를 이용할수있기를 바래요.
- 나는 늘 소성리 사드투쟁현장에 있어요
- 구직 활동으로 지난 상반기는 정말 쉽지 않았지만, 빙고의 도움 덕분에 잘 버텨낸 것 같아요. 올해는 아주아주 많이 바빠질 예정입니다. 구직에 성공해서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이버대에 다니며 공부도 시작하려고 해요. 거기에 더해 여러 친구들과 라이브 클럽 운영도 함께하게 되면서, 기획이랑 밴드 활동까지 겹쳐 정신없는 나날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저 살아남을 수 있겠죠?
- 지역공공은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 고민했던 한 해였습니다
- 빙고를 알게 된 한 해.

# 당신에게 2025년은?

- 저를 포함한 웬자족 가족들 건강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2026년에는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
-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룸 조합원으로 시작하여 작년 빙고 남태령 공동체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신규 조합원 교육, 자본의 바깥 북파티, 광장 집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빙고와 함께해 즐거웠습니다.
- 농사로는 (여러 곳의) 빛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달아버린 해였다고나 할까요, 알바를 여려개 시작했어요. 빙고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던 한해여서 좋았습니다. 두울머리 공동체 구성원 중 몇몇과 많이 소통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일부러라도 찾아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빙고의 조합원이 된 첫 해입니다. <자본의 바깥>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참 기뻐요!
-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남태령 책모임 활발히 활동중이고 남태령 공동체도 빙고에서 적극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 달
- 뭔가 한 일이 없이 지나가버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공유는 안하고 싶어요)
- X를 떠나 연합우주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빙고를 처음 알게 된 뜻깊은 해!
- 새벽낭독으로 자본의바깥을 같이 읽은 친구들과 2월 13일 지음님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와주세요.
- 2025년도엔 제가 교장으로 있는 3개월 과정의 생태문화학교 3.4기에 70명이 참여하여 45명이 수료하고 또한 1.2.3.4기 수료생 중심의 생태문화공동체 모임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선 지역 통합돌봄의 민간협의체인 중랑건강공동체 공동대표로서 구청과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의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 한 해였습니다
-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역동적인 1년이었습니다.
- 처음으로 쉬지않고 10km를 뛰었던 해였고, 도착, 결승선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임을 진심으로 알게 된 해였습니다.

# 당신에게 2025년은?

-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한 해였어요. 한번씩 집회에 나가기도 하지만 예전만큼 생활을 내팽개치고 나가지는 못해서, 개인적인 생활을 쟁기는 것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이사도 하고, 제 생활에 치중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구직을 위해 이것저것 배웠지만 결과물은 그다지 남지 않아서 이쉬움이 컸습니다. 이게 올해를 위한 밀작업이었을지는 좀 더 지내봐야 알 거 같아요.
- 《자본의 바깥》출간을 계기로 빙고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전 2쇄가 출간될 거 같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 몸과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며 스스로 감각에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 큰 전환이 있던 해였습니다.
- 퇴사와 이사를 함께한 변화가 큰 한 해였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 기운을 잘 느껴가며 조화롭게 적응 중입니다.
- "회복이 시작되는 해 였습니다
- 경력을 살려서 복직도 했습니다
- 무리하지않게 잘 풀어나가도록
- 응원해주세요~
- "
- 공동체에 기댄 한 해
- 저는 2년 간 캐나다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2025년 여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날이 덥기도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빙고 조합원이 된 것처럼 공동체에 속한 채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작지만 조금씩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 저는 재작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던 '기후정의/환경/생태 현장르포'에 내는 기사를 모두 써서 마무리하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 동료 작가분들과 함께 한 작업인데 곧 단행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책이 나오면 읽어봐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2025년 활동평가

- 이번 달에 새로 들어와 2025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 존재해줘서 고마워용.
- 건강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상황에 집중하고, 다시 건강계로도 참여할게요. 😊🙏💜 건강계 화이팅! 고맙습니다.
- 제가 직접 참여한 활동이 없어서 뭔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올해는 하나라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 참여한 활동은 4점, 그렇지 못하거나 않은 활동은 3점으로 표시했습니다.
- 책이 출간된 것 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써주셔서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 2025년 11월에 빙고를 소개받고 반가운 마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라 앞으로 배우고 알아가며 함께하겠습니다.
- (참여를 못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네요ㅠ 올해는 얼굴 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12월에 조합원이 되어서 함께한 활동은 없다시피 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참여하지 않은 활동도 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활동은 3점으로 매겼습니다.
- <차본의 바깥>이라는 책으로 빙고의 활동과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밖으로도 확산되도록 쟁여주면 저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빙고책이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일꾼들께 고마움을 보내드립니다!
- 거리투쟁에 연대하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오랜만에 조합원 교육이 이뤄진 점은 좋았다. 조직 운영을 위한 공론장을 통해 많이 이야기들이 나눠졌고 조금씩 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다만, 원래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쉽다.

# 2026년 빙고 활동방향

- 남도 곳곳 이미 있는 커먼즈적 조짐들이 빙고로 전환되게 하려면 어케해야할까 고민중.
- 지금처럼!
- 외부 단체에 대한 출자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 전국적으로 빙집, 빙가게가 있어서 빙고 지도를 만들고 빙고 투어 여행가이드북을 만들어보고 싶네요. ㅎ
- 늘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 아직은 배워가는 단계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빙고의 인력풀을 감안한다면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으로는 공유사무실, 공유주거, 공유장소 ... 그 무엇이든 실제로 조합원들과 빙고에 연대하는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확보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한다. 조합 운영을 위한 조합원 교육과 환대팀, 홍보팀 활동 말고는 사업을 늘리지 않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번에 가비 조합원과 관련한 빙고의 대응과정을 통해 빙고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사안들에 대처할 '내규'나 '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조직 운영의 내실을 어떻게 다질지 고민하고 조직 내부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 빙고는 상근활동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조직이라 실제로 일할 주체들을 찾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문제가 매번 과제로 떠오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빙고의 운영방식과 내부를 어떻게 정비할지 고민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시도를 해보았으면 한다."

# 예치금 활용방안

- 공유지 활동
- 묵고 있는 산밭이 있는데 그곳을 조합원들이 같이 이용할 마음있는지 의논해보고 싶네요
- 필요한 타 단체들과 접촉해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띵동 등)
- 전주에 지향집이라는 곳에서 거점 공간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곳을 오래 운영한 분이 그 옆에 주택을 사서 주거공간도 오래 고민만하고 있다고 하는데,, 빙고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을 모아 이곳의 돈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현재 주 운영자가 쉼과 돌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바로 계획이 어렵지만,, 차근 차근 지향집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 처음으로 총회 설문지를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관심을 더해서 써봤어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빙고에 가까이 다가가는 목표를 세워볼게요. 한동안 반환이 어려울 것이 너무 분명한 조합원도 이용 활동을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보면 어떨지 생각해 봤어요, 이를 반환만 10년동안하고 10년 뒤부터 반환? 이될게요(이미 그러고 있다면 죄송 + 존경).
-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마을 조성의 비전을 함께 품고 이를 실현해갈 공동체 모임이 생기고 여기에 필요한 이용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및 청년, 그리고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요가, 명상, 훌라 교육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추천 및 연대할 수 있는 기관, 활동이 있다면 제안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올해도 새 보구 물살이 보구 상괭이 보러 다닐 건데 야네들과 어케 연대 이용 활동 제안할지는 고민 좀 더 해보구요..
- 공유지 매입활동(특히, 논과 밭)으로 빙고의 활동 구심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삼척 현장 활동 때 타고 다닐 전기자전거 구입을 위해 빙고 이용 후 차차 상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건을 지구분담금으로 제안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외 사회운동 등과 연대하는 방법이 모색되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기업에 자본대출이 가능하게
-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이용활동에 대해 실마리를 얻고 싶습니다.

# 연대활동 계획

-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청년위원회, 언니네텃밭 활동과 연대
- 녹색연합, 유엔난민기구 연대를 하고 있고 최근 커피를 볶아서 가자지구 후원을 하는 연대활동을 조금씩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단체활동, 사람이 많은 곳에 잘 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만한 활동은 못하고 있어요.  
고리2호기 연장반대 소송인단 가입했고요
- 만나질수록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어디까지 꿈꿀 수 있는지 상상중입니다.

# 빈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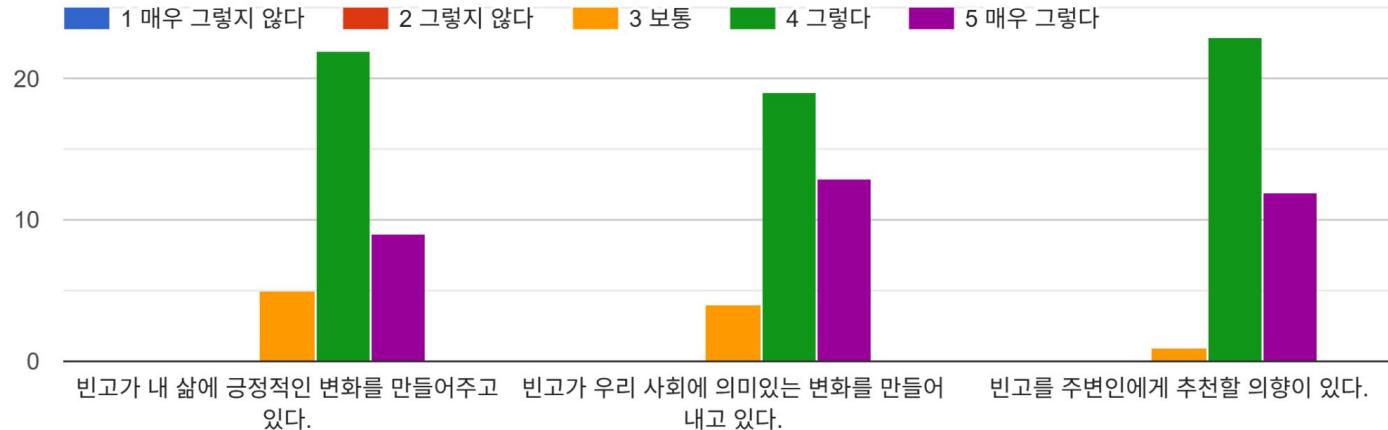
- 운영활동가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활동팀'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활동팀은 운영활동가가 주축이 아니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활동팀 또한 운영활동가가 관리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서요. 조합원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운영활동가는 부담이 있는데요. 활동팀은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여담이지만, 캐릭터 미피를 좋아하는데 그림들이 매우 귀엽네요ㅎㅎ 아래 사진에 술을 마시기 위해 늘 X로 가려져 있는 미피의 입이 열려있는 게, 미피의 포커페이스를 술과 친구들이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아 묘하게 해방감이 듭니다ㅎㅎ
- 술마시러 갑니다. ㅎㅎ
- 늘 고맙습니다!
- 밝고 맑게 나아가는 2026년 병오년 되세요!
- 생계, 건강, 돌봄 등으로 빙고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빙고가 있어 든든하고, 또 기회가 되면 빙고와 좋은 관계맺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총회에서 만나요
- 한 해동안 출자활동을 열심히 해보았지만, 정작 구성원과의 친밀함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얼굴 비추고 알아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뒷풀이라도 참석해보겠습니다.
- 빙고 힘내세요~

# 2025년 좋았던 활동

	뉴스레터	건강보험계	2025 정기총회	활동가 대회	대안금융 연대활동	거리 투쟁	조합원 공론장	조합원 교육	빈땅캠프 진안	<자본의 바깥> 출간	외부 강연	조합원과 함께 한 북토크
합계	119	107	104	110	116	114	102	103	107	133	110	116
평균	3.18	2.86	2.86	2.89	3.14	3.11	2.82	2.82	2.86	3.64	3.00	3.14
표준편차	0.53	0.74	0.72	0.75	0.66	0.70	0.74	0.83	0.77	0.49	0.78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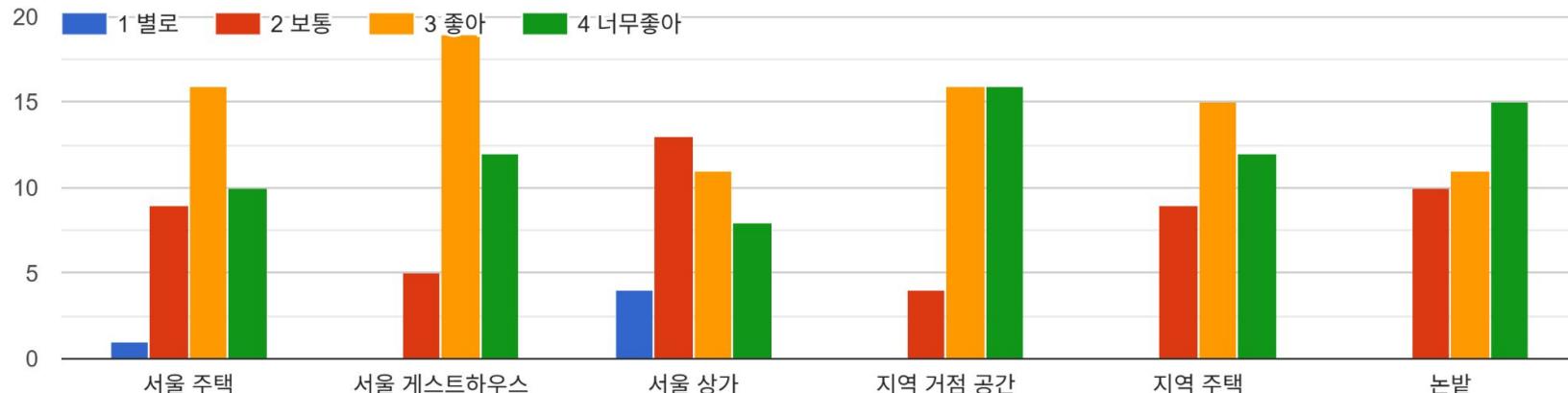
# 나와 사회의 변화

(필수) 아래는 매년 빙고 총회 때마다 반복해서 점검하고 비교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올해 빙고는 어땠나요?



# 선호하는 공간

빈고가 공간을 매입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공간이 생기면 본인에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공간별로 선호도를 매겨주세요.



# 관심있는 팀 활동

팀	이름	인원수
공유지팀	우마, 별, 힐데, 김소피, 짱돌, 도리, 흥슬기, 솔체, 향연, 이샤, 등대, 김백선, 미나, 알매가, 김김정현, 반달, 설해, 양군, 비루, 크트, 재평, 마시멜로	23명
환대팀	우마, 흥슬기, 최효정, 김백선, 알매가, 김김정현, 쌩쌩, 반달, 비루, 노래	10명
모임팀	우마, 그링, 초록, 미나, 알매가, 양군, 비루, 재평	8명
뉴스레터팀	잔잔, 감은빛, 최승주, 박혜란, 알매가, 양군, 램RAHM, 재평	8명
교육팀	힐데, 도리, 윤기쁨, 알매가, 김김정현, 염	6명
홍보팀	김소피, 알매가, 설해, 양군	4명
성인지팀	설해	1명

# 자본의 바깥 리뷰



좋은 리뷰에 투표해주세요.

<https://forms.gle/kJAWkKFeZFEgM8Ud8>

# 2025 빙고 어워드

출자활동상

이용활동상

연대활동상

운영활동상

공동체활동상



# 출자활동상



# 이용활동상



후	홍성훈	하루	파스	크트	최곰	천피터	찬	지음	지선
지각생	정민	자기	일종의친구들	이파람	이수희	윤집사	윤기쁨	유마	유동
웅기	우중산책	왕뚜껑	연두	양군	시금치	설해	상글	살구	베로
배꼽냄새	밍주	민하	미옥	문경	몽애	디온	디디	다운	노래
김성은	김상철	고집사	개굴	감은빛	-	-	-	-	-

# 연대활동상



후	햄	하루	크트	카라	최효정	짱돌	지음	조이	제제
정훈	잔잔	유나	염	연두	양군	알록	아침	쌩쌩	설해
살구	비루	부깽	별	반달	멍구	마시멜로	땡땡	달래	-

# 운영활동상



# 공동체 활동상



힐데	후	향연	하지메	하루	지음	지각생	제제	이파람	이수희
이름	웅기	옥수수	수수	서원	살구	뿔차차	비루	부깽	별
반달	밍주	민하	물범	몽애	냇벼들	김소피	광대	-	-

# 2025 빈고 어워드

활동상	어워드 수	전년대비
출자활동상	85 개	+2 개
이용활동상	47 개	+1 개
운영활동상	44 개	+6 개
연대활동상	31 개	+19 개
공동체활동상	28 개	-7 개
총계	235 개	+21 개

구분	수상자 수	전년대비
5 관왕	3 명	+0 명
4 관왕	9 명	+6 명
3 관왕	15 명	-6 명
2 관왕	23 명	-1 명
1 관왕	93 명	+17 명
총계	143 명	+16 명

# 총회 자료집

- 개회선언
- 2025 활동평가
- 2026 활동계획
- 기타 안건

# 2부 : 본회의

- 개회선언
- 2025 활동평가
- 2026 활동계획
- 기타 안건

# 총회 성원 확인

전체 조합원	547 명	참석률
전체 의결권	230 명	
참석	44명	65.2%
위임	106명	

# 개회 선언

- 의사일정 확정
- 서기 선임
- 안건 채택
- 전년도 회의록 승인

# 빈고 정관 전문 낭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고 가꾸며 살아가는 공유지다.

우리는 공유지를 망치는 독점과 수탈과 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질서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본의 은행에서 벗어나 탈자본의 은행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화폐가 자본이 아닌 공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하고, 빙고의 공유지에 출자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대출을 거부하고, 빙고의 공유지를 이용한다.

우리는 자본수익을 사양해서, 원래의 주인인 빙고의 외부와 연대하고 환대한다.

우리는 황폐한 공유지나 또 하나의 자본이 되지 않도록, 빙고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자본의 원리를 넘어 공유를, 국가의 원리를 넘어 자치를, 가족의 한계를 넘어 환대를 실현하는  
공유지은행 빙고를 함께 만들어간다.

우리는 공유, 자치,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 스스로 공유지가 되어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 2025 활동평가

- 제1호 안건 : 2025년도 활동보고 및 평가
- 제2호 안건 : 2025년도 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
- 제3호 안건 : 2025년도 감사보고
- 제4호 안건 : 특별 보고 안건
- 제5호 안건 : 2026년도 조직 및 임원구성

# 결산 : 공유상태 표

공유지(좌변)				공유자(우변)			
구분	전기(2024)	당기(2025)	당기/전기	구분	전기(2024)	당기(2025)	당기/전기
자산 총액	601,974,513	635,091,424	106%	부채+자본 총액	601,974,513	635,091,424	106%
현금 및 예치금	285,458,871	340,672,905	119%	출자금	358,195,863	382,909,426	107%
공동체출자	18,000,000	18,000,000	100%	적립금	115,343,875	133,735,707	116%
공동체공간	200,740,000	161,887,274	81%	공통장	52,839,541	53,021,919	100%
공동체활동	51,593,333	36,019,785	70%	공통계	51,874,923	52,109,697	100%
공동체회원	17,060,000	20,590,691	121%	차입금	0	0	-
조합원이용	29,122,309	57,920,769	199%	당기잉여금	23,720,311	13,314,675	56%

# 결산 : 운영성과표

지출				수입			
구분	전기(2024)	당기(2025)	당기/전기	구분	전기(2024)	당기(2025)	당기/전기
지출 총액	12,755,690	10,286,590	81%	수입 총액	36,476,001	23,601,265	65%
운영비	1,139,360	516,490	45%	공동체분담금	25,601,768	9,027,452	35%
활동비	9,148,000	7,908,000	86%	조합원분담금	750,719	1,356,225	181%
회의비	1,112,350	886,340	80%	조합비	2,160,000	2,340,000	108%
사업비	1,280,980	675,760	53%	활동수입	730,000	2,489,100	341%
이자비용	75,000	-	0%	선물	297,703	605,000	203%
기타지출	-	300,000	-	이자수입	6,935,811	7,783,488	112%
당기잉여금	23,720,311	13,314,675	56%	기타수입	-	-	-

# 잉여금처분안 1 (기본안)

## 당기(2025) 잉여금 분배안

잉여금총액	13,314,675 빈	100.0%	전기 대비 56%
출자지지금	8,894,882 빈	66.8%	출자금의 2.5% 적립(전기 -0.5%P)
지구분담금	1,400,000 빈	10.5%	10% 이상
이용지지금	1,400,000 빈	10.5%	10% 이상
빈고적립금	1,369,793 빈	10.3%	잔여분
활동가기금	250,000 빈	1.9%	전기 동일

# 잉여금처분안 2 (지구분담금)

## 당기(2025) 잉여금 분배안 - 지구분담금 추가

잉여금총액	13,314,675 빈	100.0%	전기 대비 56%
출자지지금	7,115,890 빈	53.4%	출자금의 2.0% 적립 (전기 -1.0%P)
지구분담금	3,000,000 빈	22.5%	10% 이상
이용지지금	1,400,000 빈	10.5%	10% 이상
빈고적립금	1,548,785 빈	11.6%	잔여분
활동가기금	250,000 빈	1.9%	전기 동일

# 감사 보고서

감사 : 김재광, 크트

# 17기 활동가 후보

- 대표활동가 : 설해(대표), 지각생(부대표), 양군(부대표)
- 운영활동가
  - 계속 : 반달(전북), 설해(충북), 쌩쌩(전남), 양군(서울), 연두(경기), 잔잔(전남), 지각생(경기)
  - 신규 : 별(서울), 온(서울), 봉봉교수(서울) + 현장추천
  - 종료 : 마시멜로, 반바지
- 책임활동가
  - 재정담당 : 지음 (+후임)
  - 건강보험계 : 유선
  - 홈페이지 : 부깽
- 갈등탕비실 : 온
- 감사 : 뺏차차 + 파스

# 2026 활동계획

- 제6호 안건 : 2026년도 활동계획
  - 조합원 활동팀 논의
- 제7호 안건 : 2026년도 예산 및 공유지운영
- 기타안건

# 조합원 팀활동

- 뉴스레터팀 : 잔잔
- 공유지팀 : 지각생
- 교육팀 : 지음
- 환대팀 : 쌩쌩
- 성인지팀 : 별

# 소식공유

# 건강보험계

거대 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에 가입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보험 하나 없이 살자니 매일매일이 불안하시다고요? 빙고에는 건강 보험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계에 매달 계비를 내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면 겟돈으로 치료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계비는 매달 꼬박꼬박 냈지만 너무 건강해서 겟돈을 타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의 계비덕에 많은 계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도 건강하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상부상조의 정신이 스며든 계모임과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이 두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진 건강보험계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빙고로 문의주세요!

# 빈땅조합

올해 빈땅캠프는 포항에서

7월말 ~8월초

1. "책을 만든 뒤에는 책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일이 일단락되었다는 안심과 책 내용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함께 온다. 《자본의 바깥》은 부담을 넘어 나를 종용했다. 그동안 은행에 작지만 소중한 자본을 맡긴 나의 행위는 무엇을 뜻했을까. 아마도 나 혹은 내 경계 안에 머무는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온하길 바라며 자본을 모으고 조금이라도 자본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 계좌에 찍혀 있는 내 자본은 그곳에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금융경제 속에서 돌고 돌며 다른 이의 안온함을 빼앗아 왔다. 사실 모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건 거대 기업의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의 작은 목적들이 한데 모인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흔히 말하는 자본수익이 그 안온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나, 내 경계를 허물거나 확장해야 한다는 불가능하고 추상적인 주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이 자본과, 그리고 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치열하게 떠올리고 자본을 배불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 선택, 또 선택해야만 한다.

《자본의 바깥》 그 치열함의 결과다. 빙고의 조합원이 된다는 건 어쩌면 내가 치열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빙고에게 대신해달라고 맡기는 가장 쉬운 방법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간파해서는 안 된다. 빙고가 대신한다는 건, 빙고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책을 읽은 이들은 빙집이나 빙고와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꿈과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책을 읽을수록 빙고를 유지하기 위해 부딪치고, 때론 외면하며, 다시 개입하다가, 이제는 서로 얹혀버린, 도무지 풀 수도 풀 이유도 없는 사람과 공동체 간의 매듭이 읽혔다. 빙고는 우연히 이루어진 꿈이 아니다. 많은 이들의 치열함의 결과다. 그래서 이 책은 계속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빙고를 만들겠느냐고. 그리고 계속 궁금해한다. 당신이 만들 빙고가 기대된다고. 《자본의 바깥》이 자본의 탈환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빙고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의 바깥》은 동시에 말한다. 그것을 빙고에게 미룰 수만은 없다고. 당신이 함께 치열해지지 않는다면 자본의 바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이다."

## 2.

인간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탐욕때문에 세계를 훼손하고, 살상하고, 착취하는 인간에 본인이 속해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 읽히고 싶어요. 그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간에게 절망한 세바스티앙 살가두가 나무를 심으면서 본인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읽었습니다. 그 옆에 저는 조그맣게라도 서 있고 싶네요.

3.

이게 가능했다고?

이게 가능했다고!!!

3.

책을 읽은 당신, 익숙한 세계관이 흔들린다. 설렘으로 시급히 다른 무언가를 실천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책 책장만 열면 편두통이 사라지면서 불면증을 극복하게되는 사람이지만 이 책만큼은 꼭 완독하고 싶어요!

그만큼 인류에게 꼭 필요한, 자본주의로 인한 너무 많은 폐해를 (늦은감이 있지만) 치유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담긴 책이라 생각해서 전 세계 인구의 반은 꼭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3.

요즘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고 있다!  책 <자본의 바깥> 이 책은 '정말 이대로 좋은 걸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질문하며 돈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모두가 자본수익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엔 서울 해방촌에서 10년 넘게 20여 채의 집을 계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이자 손님이 되어 지낸 '빈집' 활동과 그게 커져 마을가게가 생기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커먼즈은행 '빈고'가 탄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문득 전에 다녔던 조직에서 한 동료가 자신은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가 여기에 나온 빈집에서 지낸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지금 나는 슬슬 집을 찾아봐야해서 부담이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며 '이게 최선인가' 질문하게 되었다. 저렴한 월세집을 찾고 월세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을 모으고 전세금을 모아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이고 또 노동하고 누군가는 돈이 돈을 버는 그 사다리뿐일까? 정말 모두가 자본수익을 거절한다면? 집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집 한켠의 방을 모두가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면? 나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나도 작은 실험을,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읽고 여러 사람과 잔뜩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마침 전주 책방 토닥토닥(@todakbook)에 1월 10일 책의 저자가 와서 북토크가 열리니! 전주 사람들 모두 모이세요    누구든 이 책을 읽고 말을 걸어주길, 같이 상상할 사람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 하와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나눔 (하얀늑대 조합원)

- 훌라 및 하와이 호흡명상 나눔 
- 참가비 : 1인 5,000원(빈)
- 시간 : 80분
- 장소 : 2호선/6호선 합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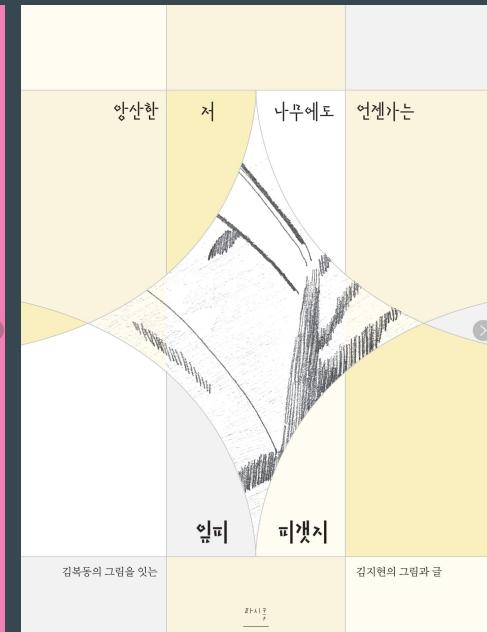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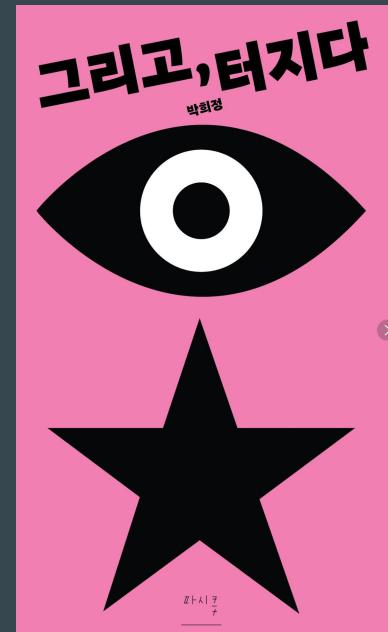
# 파시클 출판사 (일종의친구들 조합원) 책 3종 각 10권씩 기증

<회사가 사라졌다 : 폐업 해고에 맞선 여성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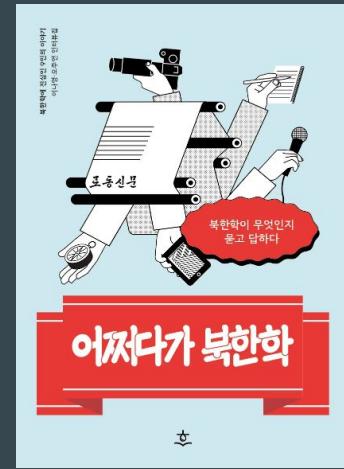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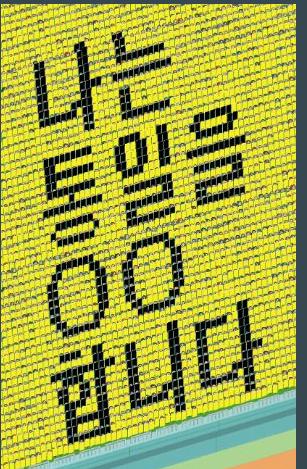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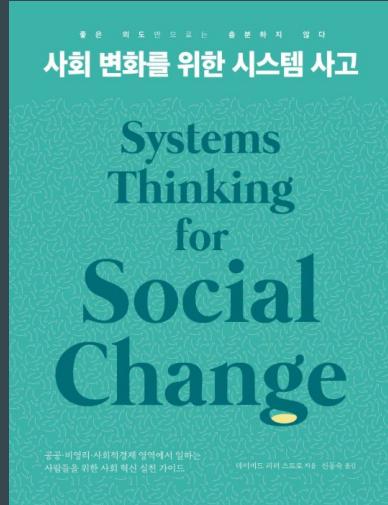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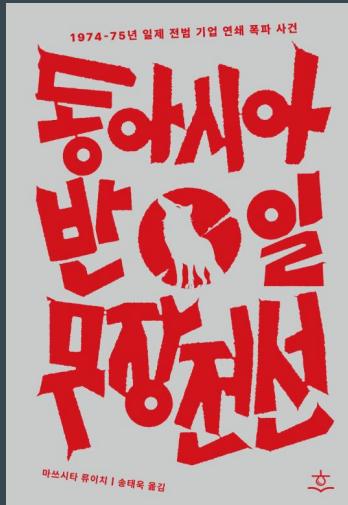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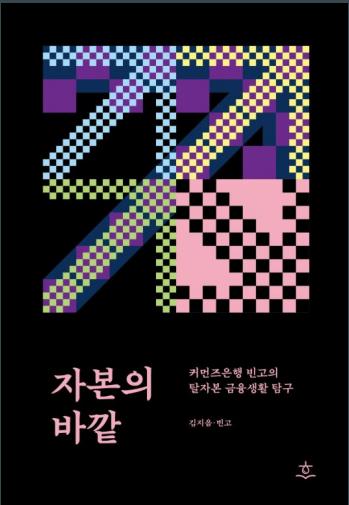
<그리고, 터지다 : 납득할 수 없는 세계를 터뜨리고 새로 피워내는 여성 만화가 5인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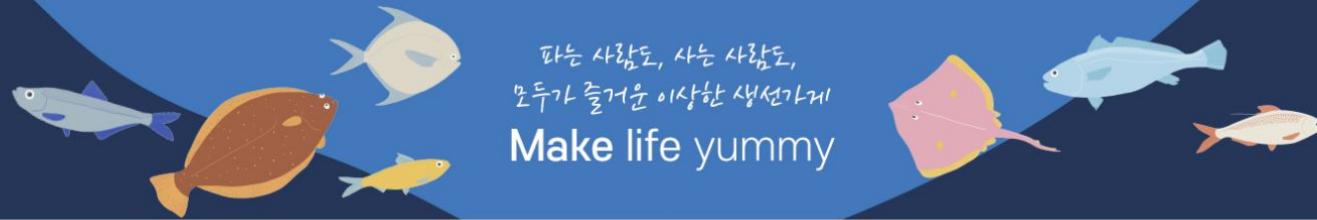
>

<앙상한 저 나무에도 언젠가는 잎피 피갯지>



# 힐데와소피





## 이음수산 대표생선12



이상한 생선가게 이음수산은 바다, 문화, 이야기를 공부하고, 연구하여, 우리 삶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당신의 삶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이 이상한 생선가게의 목표입니다.

이야기가 담긴 작은 물건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make life yummy, we are all connected**

#신선한 #회 와 #제철해산물, #밀키트 판매  
#바다, #문화, #이야기 를 바탕으로 #굿즈 제작, 판매

기념사진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 뒷풀이

~9시 : 희년평화빌딩

9시~ : 비루 집

(비용은 사업비 제외하고 빙빵합니다.  
 )